전국　서울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청년 일자리희망 노사정 화합　식재 행사

박준호 기자

등록



【서울　뉴시스】박준호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일 식목일을 맞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사 화합을 기원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잇따라 가졌다

서부지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에서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김계진 총학생회장　김홍섭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식재를 실시했다

식수 소나무 는 서부지청에서 기증한 것으로 청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일자리희망을 가꾸자는 의미를 담았다　명지대는 고용부의 위탁사업인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홍섭 서부지청장은　소나무가 으뜸을 상징하듯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는 대학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사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식재 행사에는 김홍섭 서부지청장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서유성 순천향대학교병원장 강정구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부지청은 소나무를 기증한 것으로 노사가 늘 변치 않는 푸르른 소나무처럼 강한 신뢰를 갖고 상생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부지청과 병원 노사 양측은 앞으로 노사정이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노사화합과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다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